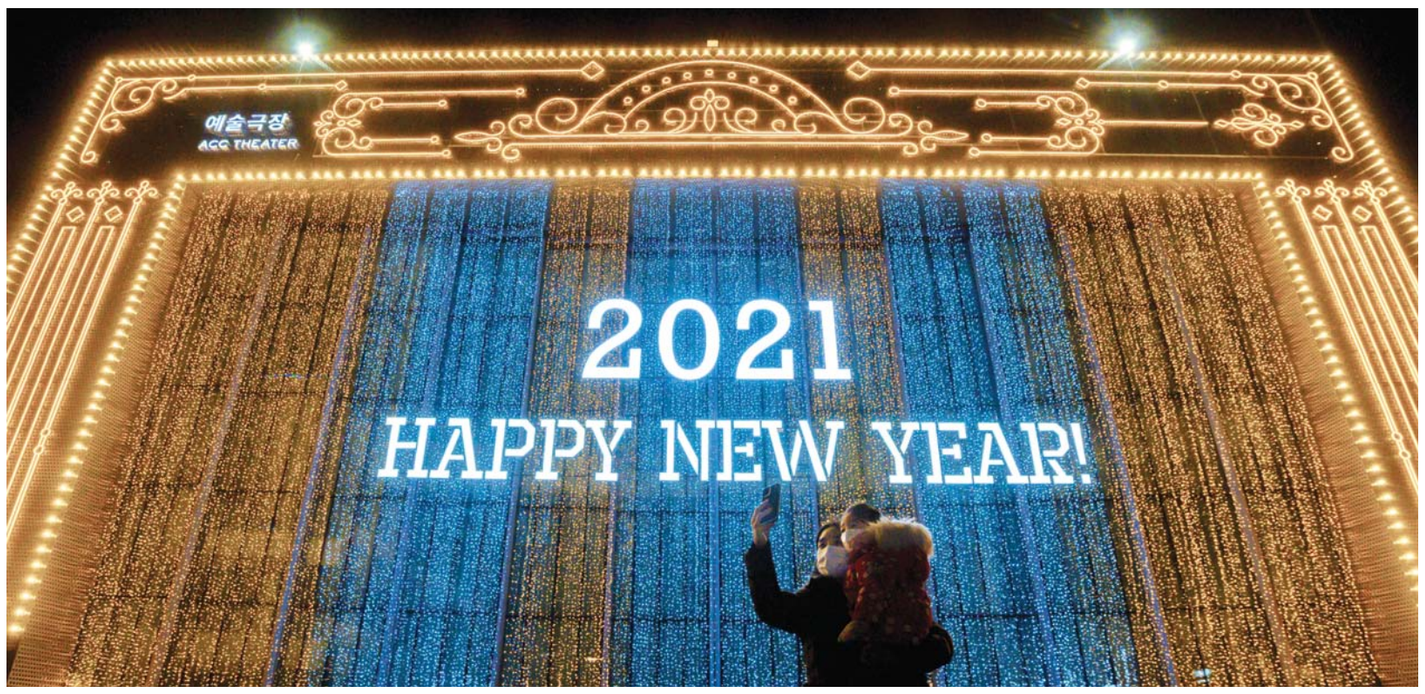

문화전당 밝힌 'HAPPY NEW YEAR'

13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1 빅도어(Big Door)에 골드와 실버 색으로 빛나는 조명이 설치됐다. 이번 'ACC 연말조명'은 전당 야외 공간 활성화를 위해 빅도어와 1번 게이트에도 설치됐으며, 새로운 2021년을 상징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능 최저등급 못 맞출까' 전전긍긍

3등급 이내 7000명 줄어들 듯
응시 인원 줄고 결시율 상승 따라
수시 이월 인원 많으면 정시도 영향

수능 이후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한창인 가운데 수능 최저학력기준(최저등급) 충족 여부가 이번 대학 입시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수능 최저등급이 필요한 수시 지원 수험생들이 정확한 수능 점수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입시를 치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로 응시 인원 자체가 줄고 결시율도 역대 최고로 높아 최종 결과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점도 수험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인문계 학생이 보는 수학 나형의 경우 응시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3만 9000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는 등급별 인원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시자가 과목에 따라 3만 명 줄면 크게는 6000~7000명 정도가 3등급 이내에서 수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

등급 컷에 몰려있는 수험생들이 그만큼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지고, 또 동점자 수가 늘어날 경우 1·2등급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3등급이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가채점 결과 전반적으로 등급 컷이 하락하면서 경계점수에 해당하는 수업생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3등급 커트라인이 각각 91점, 85점, 77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8개 입시업체 예측 평균 88점, 80점, 72점 등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절대평가인 영어도 지난해와 비교해 1등급은 비슷하거나 다소 늘고, 2~3등급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영어 1~3등급 비율은 각각 7.4%, 16.3%, 21.9%였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점수 분포도에 따라서 대부분 등급대는 줄 수밖에 없는데 특정 등급대에선 오히려 조금 상승하면 나머지 등급대는 줄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23일 수능 점수와 실제 등급 커트라인이 발표되면 수험생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수능이 상위권과 하위권은 많고 중위권은 적은 '모래시계형' 분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같은 등급 학생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중위권이 적어지면서 이들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시에서 정시모집으로 넘어가는 이월 인원이 늘어날 경우 정시 상위권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예상보다 성적이 안 나와 등급이 하락하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시에서도 내려간 점수에 맞춰 하향지원할지, 원래 가려던 대학에 소신지원할지 결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콘텐츠 신경썼더니…광주교육청 유튜브 구독자 6000명 돌파

광주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유튜브 구독자가 6000명을 돌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3월까지 구독자가 고작 250명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1년 반 만에 5000명 이상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6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튜브 구독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은 광주 출신 연예인 등이 노래와 춤 등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추천하는 스타발굴단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자료를 개발해 유튜브에 올린 것도 구독자 확충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에는 시 교육청이 수능 시험장에 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가림막 책상' 영상을 제작, 조회 건수가 8000건에 달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도를 반영해 더욱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며 "내년 구독자 1만 명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첫눈…폭설…빙판

오늘~내일 최대 15㎝ 예상
영하 8도~영상 2도 '강추위'

14일과 15일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15㎝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새벽부터 15일까지 해기차로 인해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동부권을 제외한 광주와 일부 전남지역에는 15일 오후까지 2~7㎝, 전남서해안 등 많은 곳에는 최대 15㎝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14일 광주·전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15일은 최저기온 영하 8도, 최고기온은 0도 이하에 머무르는 등 강추위가 예상된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욱 낮아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3일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과 보행자 안전사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동구달빛걸음, 대한민국 최고 '문화재야행' 선정

광주시 동구는 문화재야행 '동구달빛걸음'이 지난 11일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0년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에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에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문화재야행 분야에서는 전국 36개 자치구 중 광주 동구와 수원시·순천시가 선정됐으며, 이중 '동구달빛걸음'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전국 최초로 온라인 야행을 기획·운영해 지역문화재 활용우수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구문화재야행은 올해 역시 옛 전남도청, 서석초등학교, 광주읍성 유허를 중심으로 야간문화향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세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야행으로 전환해 문화재 VR투어, 야간경관 조성, 명인·명장 유튜브 업로드, 인문학살롱, SNS이벤트 등 다채로운 비대면 전시와 온라인 관람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송출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재 관광 프로그램이 우수문화축제로 선정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 일상시대에 대응한 선제적인 문화예술 관람방식의 변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AI 무채혈 혈당측정센서' 개발 나서

정부 개발과제 선정

화순전남대병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 채혈없이 혈당 측정이 가능한 센서 개발에 나선다.

화순전남대병원 의공학과와 오경진 교수(비뇨의학과)·박주헌 전임의(진단검사의학과)팀의 '광도파로 배열 격자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무채혈 혈당 측정 센서 개발' 프로젝트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혁신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과제책임자는 화순전남대병원 정장식 의공사이며, 중기부 연구개발(R&D)과제 평가위원으로도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이번 R&D사업에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휘라포토닉스, 한국광기술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무채혈 혈당측정 센서분야는 전세계 당뇨환자가 5억여 명에 달하고,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 분야도 급성장세여서, 글로벌 시장 진출전망이 매우 밝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안 상정

전남도의회 유성수(더불어민주당, 장성1)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격수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원 역량 강화를 비롯해 운영실태 조사 등 원격수업 정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원격수업 취약 계층인 장애학생, 다문화 가족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도입으로 학습격차가 심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원격수업 체계와 시스템이 갖춰져 효율적인 원격수업 운영기반 조성에 힘 쓰겠다"며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에 대응하는 원격수업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6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6
총계		29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 2021. 1. 18(월)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1. 7(목) ~ 11(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www.kwangshin.ac.kr